

KIA, MLB 출신 강속구 투수 손 앤더슨 영입

KIA 타이거즈가 강력한 구위의 장신 오른손 투수를 영입했다. KIA가 지난 30일 외국인 투수 손 앤더슨(Shaun Anderson·우투우타·28)과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옵션 3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입단 계약을 맺었다. 미국 플로리다주 코랄 스프링스 출신인 앤더슨은 신장 193cm, 체중 102kg의 체격을 갖춘 우완투수로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6시즌 동안 활동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통산 63경기에 출장해 3승 5패 평균자책점 5.84의 성적을 남겼다. 올 시즌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1경기에 나와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18.00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 성적은 113경기(선발 72경기) 출장, 24승 17패 2세이브 8홀드 평균자책점 3.72. 올 시즌에는 마이너리그(트리플A)에서 36경기(선발 15경기)에 나서 88이닝을 던지며 3승 3패 평균자책점 3.58을 기록했다. 앤더슨은 큰 키에서 내려오는 최고 154km의 빠른 공이 강점으로 꼽힌다. 강속구를 앞세운 앤더슨은 슬라이더와 투심 패스트

193cm 장신에 최고 구속 154km 위력적 메이저리그 4시즌·마이너 6시즌 활약 연봉 6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 파노니 고심 속 새 외국인투수 물색 중

볼, 커브, 체인지업 등의 변화구도 구사한다. 빠른 투구 템포와 강력한 구위를 갖춘 그는 이닝 소화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앤더슨과의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KIA는 외국인 선수 남은 한 자리를 채우는 데 집중하게 됐다. KIA는 앞서 지난 8일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Socrates Brito·30)와 총액 110만 달러(계약금 30만, 연봉 50만, 옵션 30만 달러)에 일찌감치 재계약을 끝냈다.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은 소크라테스는 코뼈 골절 부상에도 127경기(선발 114경기)에 나와 514타수 160안타로 0.311의 타율을 기록했다. 17개의 홈런과 77타점도 올린 소크라테스는 83득점 OPS 0.848

을 찍었고, KBO 5월 MVP로도 이름을 올렸다. 소크라테스는 성적은 물론 팀워크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년 시즌에도 KIA의 승리를 위해 뛰게 됐다. 올 시즌 잇단 부상으로 고전했던 선 노린을 대신해 앤더슨을 영입한 KIA는 토마스 파노니(Thomas Edward Pannone·28)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7월 로니 윌리엄스의 대체 선수로 KIA에 합류한 파노니는 올 시즌 14경기에 나와 82.2이닝을 소화하면서 2.72의 평균자책점과 3승 4패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활약으로 후반기 5위 싸움에 역할을 했지만, 팀이 바라는 '원투펀치'의 강렬함은 부족했다. 좋은 구위의 강속구 우완 앤더슨을 새로 영입한 KIA는 역시 구위를 더한 좌완 선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새 외국인 선수 영입 작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KIA는 검증된 파노니와의 재계약으로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 시즌 KIA가 외국인 선발진의 부상과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외국인 투수'는 이번 스토브리그의 관망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의 새 외국인 투수 우완 손 앤더슨이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FC 선수들 “물 절약 함께 해요”

광주FC 선수들이 ‘물 절약 캠페인’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광주는 최근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장기화에 따른 물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 속 물 절약 20% 동참’ 캠페인 영상을 제작,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1분 10여 초 가량의 영상에는 ‘주장’ 안영규를 비롯해 이희균, 박한빈, 허을, 엄지성이 출연해 ▲수도 밸브 수압 낮추기 ▲양변기 수조에 물병 넣기

▲샤워 시간 절반 줄이기 ▲양치컵 사용하기 ▲빨래 모아서 하기 ▲물 받아 설거지하기 등 생활 속 실천 가능한 물 절약 방법을 소개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안영규는 “가뭄이 이 정도 심각한 줄 몰랐다. 내년 3월이면 물이 고갈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위기감을 가지고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시민들 모두가 한마음이 돼 가뭄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물 절약 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에 가뭄이 계속되면서 내년 3월 상수원 고갈로 인한 제한 급수·단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생활 속 물 절약 20% 동참’ 캠페인 영상 제작에 참여한 광주FC 주장 안영규. (광주FC 제공)

한국 남자하키, 일본 꺾고 네이션스컵 4강행

한국 남자하키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국제하키 연맹(FIH) 네이션스컵 4강에 진출했다. 신석교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29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프스트룸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일본을 3-1로 물리쳤다. 전날 말레이시아를 1-0으로 제압한 한국은 2승으로 남은 캐나다전 결과와 관계없이 4강 진출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1쿼터 장종현(성남시청)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며 2쿼터에는 김성현(성남시청)이 한 골을 추가해 2-0을 만들었다. 전반을 2-1로 마친 한국은 3쿼터 종료 직전 장종현이 다시 한 골을 터뜨려 승기를 잡았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개최국 남아공을 비롯해 프랑스, 아일랜드,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캐나다, 일본 등 8개국이 출전했다. 한국은 12월 1일 캐나다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우즈 “내년 메이저 외 1~2개 대회 더 출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7·미국·사진)가 2023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밝혔다. 우즈는 30일(한국시간) 바하마에서 열린 히어로 월드 챌린지 공식 기자회견에 나와 “2023년에는 메이저 대회 외에 1, 2개 대회에 더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몸 상태가 따라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즈는 12월 1일부터 나흘간 바하마에서 열리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 나갈 예정이었으나 오른쪽 발바닥 통증으로 출전 계획을 철회했다. 다만 이 대회는 타이거 우즈 재단이 개최하기 때문에 대회 주최자 자격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우즈는 지난해 2월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2021시즌은 대회에 나오지 못했고, 올해는 메이저 대회에만 세 차례 모습을 보였다. 2023년에는 4대 메이저 대회 이외에도 출전 횟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이날 밝힌 셈이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내년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나 3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을 우즈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회로 지목했다. 우즈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샷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집 주위 코스에서 카트를 타고 경기하면 4에서 7언더파 정도를 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72홀을 걸을 수 있는 다리 상태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다가 최근 오른쪽 발에 무리가 왔다는 것이다.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는 기권했지만 이후 12월 17일부터 이틀간 아들 찰리와 함께 PNC 챔피언십에는 예정대로 출전한다.



10일에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한 조로 저스틴 토머스-조던 스피스(이상 미국) 조를 상대하는 이벤트가 예정되었으나 우즈는 이날 경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즈는 PNC 챔피언십에 대해 “찰리가 모든 샷을 하고, 나는 퍼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기하기 쉽다”며 “무엇보다 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전 매길로이가 자신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옮겼다는 인터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우즈는 “나도 검사를 받기는 했지만 음성으로 나왔다”며 “몸 상태가 안 좋기는 했는데, 검사해서 양성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진성검도관 대한검도회 우수단체상

이진성 관장 우수 지도자상... 오치검도관 옥하준 최우수 선수상



대한검도회 우수단체상을 받은 진성검도관 이진성(왼쪽에서 두번째) 관장. (광주검도회 제공)

광주 진성검도관이 대한 검도회 초등부 우수단체상을 받았다. 대한검도회는 최근 서울 해군호텔 W웨딩홀 1층 아일랜드홀 대한검도회 표창식 및 검도인의 밤 행사를 열고 진성검도관을 초등부 우수단체로 선정, 시상했다. 진성검도관 이진성 관장은 초등부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진성검도관은 전국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는 등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지난 5월 열린 제25회 전국 초등학교 검도대회(고학년부) 우승, 제5회 청송군수기 전국 초등학교생 검도대회(고학년부)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또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학생 검도대회 초등부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광주 오치검도관은 최우수 선수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오치검도관 옥하준은 전국대회에서 초등부 개인전 최강자에 올라 상을 받았다. 옥하준은 제51회 전국소년체대회, SBS배 전국검도왕대회에서 각각 정상에 올랐다. /연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프로당구 PBA 시즌 5번째 투어 9일 개막

프로당구 PBA의 시즌 5번째 투어가 9일부터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다. 이번 투어는 경북 경주와 강원도 춘천, 태백에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개최하는 4번째 대회다. 남자부에서는 PBA 랭킹 1위 다비드 사파타(스페인·블루원리조트)를 비롯해 ‘당구 황제’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웰저저축은행), 조재호(NH

농협카드), 강동궁(SK렌터카)이 총출동한다. 여자부인 LPBA 역시 ‘캄보디아 특급’ 스톤 피아비(블루원리조트),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 등 스타 선수가 출격한다. 시즌 예정된 8개의 정규 투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번 대회부터는 순위 경쟁도 본격적으로 치열해진다.

PBA는 8번의 투어 대회 이후 상위 32명에게 시즌 왕중왕전 격인 PBA 월드챔피언십 출전 자격을 준다. 시즌 종료 후에는 1부 투어 상위 절반만 살아남는 승강 제도를 시행한다. PBA는 이번 대회를 맞아 하이원리조트 특설 경기장에서 스톤 피아비, 이미래 등이 참가하는 이벤트 매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포토타임과 팬 사인회를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팬들을 찾아간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압구정
2관	대시벨
3관	올림픽, 원피스 필름 레드
4관	압구정
5관	올림픽
6관	올림픽
9관	압구정, 탄생
7관	씨네커플 압구정, 블랙 팬서: 워킹다 포에버, 동감, 헤이진나&려키강이 비밀의 문
8관	씨네커플 극장관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동감, 본즈 앤 올, 스트레인지 월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오페라단 2022 송년음악회 금년새와 함께하는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I>

일시 : 2022. 12. 3.(토) 17:00
2022. 12. 4.(일) 17:0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문의 : 062-412-2507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오페라 시리즈 1 피노키오

일시 :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6